

## 결국 올해 출범하지 못한 육계자조금 관리위원 · 감사 위촉안 끝내 부결



연내 육계자조금사업 출범이 물 건너 갔다.

지난 11월 21일 농협안성연수원에서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이 부결됨에 따라 올해 안에 육계자조금사업 출범이 무산됐으며,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하게 됐다.

이날 대의원 총회는 선출된 대의원 135명 중 정족수 68명이 넘는 72명이 참석해 개회가 선언됐다.

그러나 회의진행은 시작부터 원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의 목적인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 의결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조금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안전에서조차 일부 대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참석한 전남지역의 한 대의원은 “육계자

조금을 추진하고 있는 3개 생산자 단체가 과연 육계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표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인지부터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한 후에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홍재 의장은 “축산단체는 자조금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다”며 “오늘 대의원 총회에서는 자조금사업을 출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점점 난공불락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충남 지역의 한 대의원은 “지역별 축산업자의 수와 사육수수를 고려해서 관리위원을 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번 관리위원 추천은



한 대의원이 육계자조금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 안과 관련 투표를 하고 있다.



투표 후 삼삼오오 모여 개표결과를 기다리는 대의원들

사육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전북지역의 한 대의원은 “우리 육계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관리위원 위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자조금법에 축산단체에서 관리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 손으로 관리위원 5명을 더 뽑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부의안건이 아닌 특정업체를 비방까지 하며 논란이 거듭됐지만 일부 대의원들이 “어차피 안전에 대해 표결하면 결과가 나타날 것 아니냐”며 회의진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우여곡절 끝에 ‘관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위촉(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무산. 참석한 대의원 7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중 찬성 36명, 반대 36명으로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다는 육계자조금활동자금대의원회운영규정에 따라 끝내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2005년 12월 첫 번째 대의원은 정족수 미달로, 지난 4월 20일에는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

안 부결로, 세 번째 11월 21일 또다시 관리위원 및 감사 위촉안 부결로 육계의무자조금 출범은 기약없이 훗날로 미뤄지게 됐다.

육계의무자조금은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한 해를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가운데서도 양돈, 한우 등 타 축종은 내년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자조금을 조성해 소비촉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양돈의 경우 자조금 사업으로 ‘웰빙 돼지고기’ TV CF를 통해 그동안 비선호부위로 골치를 겪었던 등심, 안심 등의 소비가 폭증하고 닭고기 소비층까지 잠식하고 있다.

최근 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가격하락과 소비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축종의 활발한 소비촉진 활동을 보고있노라면 정말 ‘울화통’이 터진다. 지난해 12월에, 지난 4월에 육계도 자조금사업이 출범됐더라면 지금 닭고기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많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타축종의 자조금 사업 규모(한우·양돈)〉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06				2007			
	총규모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총규모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한우	11,695	7,182	1,879.9	280	13,800	9,573	2,103.8	344
양돈	10,640	8,099	971.5	408.7	11,500	6,825	1,754.9	777

※ 자금운용계획은 주로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수수료 및 관리비, 예비비 등의 금액은 제외함.